

‘우치공원’ 새로 태어난다

광주시 ‘활성화 용역 보고회’...시설 제한 없엔 주제공원으로 변경 레포츠 시설 도입·동물원 시설 개선·야영장 확대·호텔 건립 등 제안

호남 최대 종합위락공원이었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광주 우치공원이 다양한 시설 조성 등을 통한 미래지향형 공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광주시는 5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우치공원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그동안 논의의 결과를 공유하고 기본구상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광주시는 동물·조경·투자·민자유치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활성화 방안을 구상했다. 태스크포스는 공원 활성화를 위해 근린공원인 우치공원을 시설물 제한이 없

는 주제공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공원녹지법상 근린공원은 녹지율 6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물 4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치공원은 1987년 9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동물원, 유원·체육 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시설물이 40%에 육박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려면 기존 시설 일부를 축소·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공원을 유지하되, 공원 성격을 시설 제한이 없는 주제공원으로 변경해 다양한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산림 레포츠 도입을 위해 일몰제로 해제된 산림 지역을 공원으로 다시 편입하는 방안과 동물원 시설 개선, 대야제 수변 개발 등의 제안도 나왔다.

투자 방식에 따라 광주시 주도형 사업으로는 동물원 관람 동선 재정비, 관람 편의를 위한 전기카트 운행, 가족 쉼터 조성, 조경 공간 리뉴얼, 대야제 수변 둘레길 조성 등이 제시됐다.

민자유치 사업으로는 카라반 야영장을 확대하고 수상 안전 체험장, 수영장, 대야제 수상 레포츠장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광주시와 민간 공동 사업으로는 루지 체험장, 디지털 사파리, 숲길 체험공간, 플러코스터 산책로, 호텔을 건립하거나 조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 세번째)가 5일 오후 도청 접견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과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 향상 및 안전관리 교육·컨설팅,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재해·안전 관리 강화

전국재난구호협회 등 유관기관 업무협약...사고 예방·신속 지원

전남도는 5일 도청에서 전국재난구호협회와 각종 재난피해 예방, 신속복구 지원 등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전국재난구호협회와의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송필호 회장, 김경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재난재해 이재민 성급 모금 ▲자원봉사 및 구호 활동 지원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재난재해 전문인력 양성 등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전국재난구호협회는 국내 유일의 재난재해 구호급 지원 법정 구호단체다. 2020년 구레·곡성 수해 지역(39억원) 등 최근 5년간 전남에 약 8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협약 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운 완도, 신안 등 섬 지역에 2리터 병물 1만8000병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날 국토안전관리원과는 ▲도내 건설현장과 특수교량 및 도시지역 대피시설 안전점검 ▲안전관리 기술교류 및 컨설팅 ▲건설안전 교육 지원 및 홍보 등 건설현장 안전 향상 및 안전한 건설문

화 정착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지원해 보다 발전된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점검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역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도민의 행복은 ‘안전’ 위에서 꽃피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건설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전남 곳곳에 안전한 건설 문화가 탄탄히 뿌리내려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 전문 기관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올해 중소규모 건설공사 1만6000여곳을 점검하는 등 국민의 안전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민 46% “반려견 공원 출입 반대”

광주시의회 여론조사...70% “공원 이용 이유는 운동”

광주시민 100명 가운데 46명은 어떤 경우든 도시공원에 반려동물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6명에 불과했으며,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했을 때 출입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이 44명에 달했다.

또 광주시민 10명 중 8명 가까이 도시공원을 이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70%이상은 운동을 위해 공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도시공원 이용실태와 공원시설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7%가 ‘공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지난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광주에 거주하며 공원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 3.1%p) 진행됐다.

공원 이용 빈도는 주 2~3회(48.2%)가 가장 많았고,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도 24.9%에 달했다.

이용 월 1회 정도(20.9%), 3개월에 1회(6.1%) 순이었다. 이용 시간은 오후(34.9%)와 저녁(33.5%) 시간대가 가장 많았다.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운동’이 7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휴식(20.6%) ▲만남 장소(3.9%) ▲반려동물 산책(2.3%) 순이었다.

공원 내 시설이용 만족도는 70.3%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산책로’에 대한 만족도가

7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녹지공간(73.6%) ▲운동기구(71.6%) ▲화장실(65.2%) ▲안전시설(63.7%)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았다.

다만, 화장실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30.1%에 달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됐다.

반면,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변에 공원이 없거나 이용시설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72%에 달해 생활공간 주변 공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개선·보완돼야 할 사항으로는 29.0%가 ‘공원 내 시설물 관리’를 우선적으로 꼽았고, 이어 ‘안전관리 강화’(22.6%), ‘반려동물 이용수칙 관리’(22.5%), ‘녹지경관 조성’(13.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출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1%, ‘(관리수칙 준수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한다’는 의견과 ‘이용자 안전과 위생을 위해 출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각 44.4%와 46.3%로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찬성 의견이, 60대 이상은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상생가능한 성숙한 반려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역 활력에 기여

전남도, 올 140개 팀 선정...주민 심리치유·문화 콘텐츠 제작 등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전남의 여건에 맞게 사업 내용 일부를 보완한 ‘전남형’ 사업을 도입해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가 지역 청년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지난해까지 291개 팀이 참여했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전남 10개 팀을 포함해 전국 140개 팀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문화 콘텐츠 기획·제작, 미술을 통한 지역주민 심리치유, 스마트 팜 홍보영상 제작, 청년축제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안도군 ‘완망진창’ 청년공동체는 청년이 관광명소를 추천하는 청년지도도를 제작하고 유희 공간을 활용해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플리마켓을 운영하

기도 했다. 또 세대 간 화합을 위해 순주학교를 운영하고 완도 생활을 공유하는 완생 영상일기(Vlog)를 제작하는 등 새로운 청년 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청년공동체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최종 성과공유회에서 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돼 행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2021년 영광군 ‘일곱빛깔 선행공동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쾌거를 거뒀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청년이 정착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하는 최적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부 지원과 별도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 133개 팀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200개 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공동체가 이끈 새로운 청년문화가 지역에 활력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청년공동체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성장을 위한 씨앗이 되도록 청년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